



2003 서울세계음식박람회 개최 5월 14~1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려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지구촌 음식축제 2003 서울세계음식 박람회가 5월 14일~18일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개최됐다. 문화관광부와 사단법인 한국조리사중앙회가 주최하는 2003 서울세계음식박람회는 세계 곳곳의 식문화를 선보이는 음식박람회로 올해 4회째를 맞는다.

‘Taste the World’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해외 10여 개국의 조리사들이 각국의 독특한 맛을 선보이는 경연대회와 각종 전시, 이벤트 등이 열려 많은 관람객들이 찾았다. 14일 열린 개막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복쇼와 함께 풍물패의 흥겨운 공연이 이어져 행사 분위기를 한껏 드높였다.

행사장은 세계 각국의 음식관련 업체가 참가한 ‘세계관’과 다양한 한국의 전통음식을 선보인 ‘한국관’, 그리고 각종 경연대회장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됐다. 세계관은 국제적인 음식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컨셉의 부스들이 마련된 곳으로 전 세계 58개 업체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관에는 궁중요리부터 떡과 한과에 이르는 전통음식들과 함께 현대적인 컨셉에

맞게 개발된 음식들이 선보여 국내 관람객들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경연대회는 ‘찬요리’와 ‘더운요리’, ‘조각’ 부문으로 나뉘어 참가자들이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입상작들은 꽃과 얼음조각 등으로 장식된 테이블에 별도로 세팅돼 주목을 끌었다. 특히 각 호텔과 학교 등에서 출품한 디저트 부문의 입상작들은 그 다양함과 화려함으로 가장 돋보이는 전시를 마련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만든 참신하고 세련된 모양의 무스와 프티 가토 등은 전시 내내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또한 얼음과 호박 등을 이용한 조각경연에도 많은 참가인원이 경쟁을 벌여 관람객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세계의 음식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2003 서울세계음식박람회. 고부가가치의 음식산업을 육성하는 박람회와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문화 축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취재·허윤정)